

“울지마, Son” 상대팀 에버턴 선수들이 위로했다

EPL 토트넘, 에버턴 원정
손흥민 백태클에 상대 선수 부상
손흥민 퇴장... 팀은 1-1 무승부

그라운드를 누비던 손흥민(27·토트넘)이 한순간 ‘멘붕’에 빠졌다.

자신의 백태클로 넘어진 안드레 고메스(에버턴)의 부상이 의외로 심각해 보이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거운 자책감에 허둥지둥 경기장을 헤매는 그를 끌기 위해 조던 픽포드 등 에버턴 선수들이 둘러쌌다. 이들은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꺾이 다른 스포츠 세계의 우정에 감동했다. 손흥민은 상대팀 선수들의 위로에도 눈물까지 보이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토트넘은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 벨리 알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해 리그 3호 도움을 작성했지만, 후반 33분 안드레 고메스에게 거친 태클을 감행해 퇴장당했다. 고메스는 태클 때문에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해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고메스는 골절탈구로 수술대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순간적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골키퍼 조던 픽포드가 망연자실한 손흥민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경기를 마치고 주장 셰이머스 콜먼을 비롯한 에버턴 선수들도 토트넘 라커룸을 찾아 손흥민을 위로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콜먼과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라커룸에 와서 손흥민을 위로했고, 많이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이 나쁜 태클로 상대를 해칠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퇴장까지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에버턴의 마르코 실바 감독도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의 알리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도 손흥민은 큰 충격에 빠져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건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흥민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동료를 감쌌다.

한편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을 기록한 토트넘은 시즌 3승 4무 4패, 승점 13으로 20개 팀 중 13위에 자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턴 미드필더 안드레 고메스가 토트넘 손흥민의 백태클에 넘어지며 발목이 돌아가 심하게 다쳤다.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을 픽포드·토순 등 에버턴 선수들이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MVP는 김태운”

광주 FC 박진섭 감독 회견서 밝혀
“펠리페, 1부리그 활약 가장 기대”



긴 여정을 끝낸 광주FC박진섭 감독이 감격의 순간 ‘주장’ 김태운의 이름을 언급했다.

광주는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홈 폐막전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홈에서 첫 패가 기록됐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우승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은 K리그2 ‘챔피언’으로 우승 시상대에 섰다.

지난 33라운드 안양전 4-0 승리와 함께 우승 도전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한 광주와 박진섭 감독. 박 감독은 시상식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MVP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잠시 고민을 하던 박 감독은 예상과 달리 김태운의 이름을 꺼냈다.

팀의 ‘만행’이자 주장인 김태운은 부상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하면서 홈 최종전 포함 18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치며,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그라운드에서의 활약은 부족했지만 김태운은 힘든 1위 싸움을 하는 선수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우승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 감독은 “경기에 많이 나서지는 못했지만 선수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창구로서 스태프와 이야기 많이 나왔다. 분위기를 잘 이끌어준 덕분에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선수들과 잘 소통하면서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김태운을 MVP로 꼽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상대 가운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태운은 박 감독의 그런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다.

김태운은 “시즌 중에 요구사항을 못 따른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우승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태운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가 많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뚝뚝 뭉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팀에서 가장 만능인데 후배들이 다 잘 따라줘서 편하게 시즌 보냈다. 동료, 코칭스태프, 관계자들에게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다렸던 우승의 순간을 즐긴 김태운은 이제 앞만 보겠다는 각오다.

우승 시상식 직후 만난 김태운은 “우승을 하니 정말 좋다는 것밖에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만 즐기고 내일부터 내년 시즌 준비해야 한다. 내년 시즌 살아남아야 하니까 오늘까지만 즐기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시즌이다. 내년에는 좀 더 팀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감독은 올 시즌 가장 기량이 성장한 선수로는 이시영과 김정환을 꼽았다. 내년 시즌 기대주로는 펠리페를 언급했다.

박 감독은 “펠리페가 가장 기대된다. K리그1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또 펠리페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좌지우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day’ 한글 이름 유니폼 입고 1골1도움

佛 보르도 FC, 황의조 배려
한국 팬 위한 이벤트... 팀 2-0 승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공격수 황의조(27·보르도)가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펼칠 날았다.

황의조는 4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마르티트 아틀랑티크에서 끝난 2019-2020시즌 프랑스 정규리그 12라운드 낭트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골타임을 뛰면서 1골 1도움 활약으로 팀의 2-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황의조를 비롯한 보르도 선수들은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선수들의 한글 이름이 영문 이름과 함께 새겨진 유니폼이었다. 올해 입단한 황의조와 보르도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을 위해 구단이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였다.

구단의 배려에 황의조는 1골 1도움으로 화답했다.

황의조는 전반 37분 감각적인 오른발 아웃사이드 패스로 프랑수아 카마노의 선제 결승골을 도왔다. 후반 11분에는 페네티박스 아크 앞에서 오른발 감아 차기 중거리 슈트로 직접 낭트의 골문을 열었다.

올여름 유럽 무대에 진출한 황의조는 정규리그 11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날 팀의 두 골 모두에 관여한 황의조의 활약 덕에 완승한 보르도는 2연패에서 벗어나면서 시즌 성적 5승 3무 4패(승점 18)로 리그 20개 팀 중 6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보르도 황의조가 3일 낭트전에서 골을 넣고 팀 동료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출처:보르도 홈페이지)